

## 教養課程 改編을 지켜보면서

金 成 淵  
(東亞大 應用統計學科)

대학생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강압으로만 억누르기에는 한계에 부딪친 채, 소위 自律化 局面을 맞이한 지 이미 5,6년의 시일이 경과하였다. 자율화 국면을 맞이한 이후 初期에 있어서 학생들은 그간 가장 강하게 억압받아 왔던 政治的 民主化의 욕구들을 주로 표출하여 학생들의 운동 역량을 보여줌으로써 일반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시켜 왔다. 그러나 그것이 최고조에 달했던 6월 항쟁 이후 새로운 局面을 맞이하면서 정치적 이슈만으로는 역량이나 대중 등원 등에 있어서 많은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내에 산적해 있는 문제점 가운데 학생들의 피부에 바로 와 닿는 문제점들을 부각시켜 나가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은 결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귀착되기 마련이라는 점에 착안한 전술적인 측면도 없잖아 있었겠지만, 또한 민주화의 장점을 대학 사회 내에서 구현하여 그것을 체험으로 느끼고자 하는 욕구가 일반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일어났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대학 사회 내의 문제점들로서는 대학의 非民主的 運營, 不正編入學, 財團非理, 登錄金 문제 등 많은 것들을 들 수 있으나, 교과과정과 관련된 문제도 대표적인 것에 속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작년말 문교부의 국책 과목 폐지 발표와 더불어 그 이후 전국의 각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과과정 개편, 그 중에서도 특히 교양 과정 개편에 대하여 필자가 직·간접으로 경험하면서 느낀 점들을 간략히 쓰고자 한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필자가 학부를 다닐 때에도 國策科目들과 教養科目들에 대한 의미에 대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의 경우 교양 학점을 채우는 것 이상을 부여하지 못했던 듯싶다. 다시 말해서 필수로 되어 있는 국책 과목에 대해서 지배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안보 의식을 고취하는 시간 정도로 생각하고 시간이나 피우고 시험칠 때는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만 쓰면 된다는 식의 농담이나 하는 정도로 가볍게 여겼다. 또한 일반 교양 강좌도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교과 내용을 반복하거나 교양 과목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담당 교수가 전공한 특정 분야에 대한 각론을 듣는데 불과한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그러한 관행이 학생들과 교수들의 무감각 속에서 지금까지 대체로 별다른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던 것 같다.

문교부의 교양 과정 운영 지침에는 교양교육이란 '인간과 사회 및 자연과학 영역의 학문을 두루 다루어 학문 전체를 통한 일반적인 이해에 목

적을 두되, 특히 균형있고 폭 넓은 종합된 인간 형성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사회에 적응하고 또 새로운 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수련을 쌓아가게 하는 敎育의 本質을 구현하는 것' 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지점에서 올바른 세계관 속에서 主體的이고 創造的인 인간 형성보다는 추상적이고 비역사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보다 심각한 문제점은 그나마도 동떨어진 형태로 운영되는 데에 있었다. 졸업 학점의 30~40%를 차지하는 교양 과정은 전공 과정 못지않게 중요성을 띠고 있으며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한 부분인 동시에 全人敎育의 관점에서 보면 핵심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과거의 교양 과정이 안고 있던 문제점들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하여 그것을 극복하고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교양 과정으로 탈바꿈을 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기존의 교양 과정에서 지적되던 문제점들을 살펴 보면, 우선 문교부에서 작년 말 스스로 폐지시킨 교련과 대학에 裁量權을 부여한 국책 과목에 대한 것을 들 수 있다. 즉 대학에서 가장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대학의 개별성이 드러나야 할 교과목 설정에 그리 바람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정부가 강제성을 띠고 개입함으로써 교양 과정 전반에 대한 인상과 운영이 왜곡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수, 학생들이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싶어하는가' 라고 하는 學習權에 대한 고려는 거의 배제한 채 '학생들은 무엇을 배워야만 하는가'에 대한 교수들의 학문적 우월감에서 내려진 거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교과목 일반이 구성되고 그것을 대체로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던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의 自主性이나 創造性, 意識에 대한 고려가 결핍되어 있었다. 그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교양 과목들이 대체로 급속히 진행되는 사회

변화와 동떨어진 형태로 운영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지식과 기술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창조적 대응 능력과 현실의 총체적 파악 능력을 제대로 길러 주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근 학계의 성과들에 대한 개괄적 소개는 고사하고 고등학교에서의 학습 내용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한 한국사, 영어, 국어 그리고 개론 과목들이 교양 과목의 주류를 이룸으로써 학생들의 지적 욕구와는 전혀 무관하게 비현실적이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80 년대에 접어들어 思想鬭爭, 社會構成 體論爭 등을 통하여 한국 현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구조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진지하게 진행되고 또 외래 학문의 무비판적 수용에 대한 성찰이 재야 학술 단체에 의해 주도적으로 수행되면서 그 영향이 대학 내에 미치고 있으나, 교수들은 일반적으로 거기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아 학생들로서는 지적 욕구를 강의와는 별도로 충족시키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교양 과정에서는 다양한 이론과 가치가 소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서구,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 중심의 이론이 전부인 양 강조되는 경우가 많아 한국 현실을 도외시한 大主主義의 敎育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고 가치의 편향성을 갖는 분단 이데올로기의 주입이라는 느낌을 자아내는 경향이 짙었다는 것을 들 수 있겠다. 이러한 사정은 한국의 학문 실정에 있어서 당분간은 탈피하기가 쉽지 않을 성 실은데, 그러한 문제점은 새로운 가치관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강하게 부각되어 기존의 교양 과정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넷째로 교양 과정에 대한 무원칙성이 과목 개설과 운영에 있어서 恣意主義와 無事安逸主義가 자리잡게 되고, 획일적으로 무슨 무슨 개론이나 耳懸鈴鼻懸鈴式의 에매한 과목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교양

과정이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요  
식 행위로서 비취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현재 각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양  
과정 개편 작업들에 대한 경과들을 자료를 통해  
살펴 보면 교수나 학생들이 대체적으로는 개편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교양 과정의 목적과  
개편 방향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견을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정인 것 같다. 즉 교수, 학생  
동수로 구성되어 있는 東亞大의 교과과정개편  
특별위원회의 설문 조사 결과를 예로 들어 보면,  
교수들은 교양 과정의 목적이 전공에 대한 기초  
배양 교육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학생들은 비판적·창조적 사고 능력의 배양과 한  
국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교육에 있  
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개편 방향에  
있어서도 교수들은 전공 기초 및 인접 학문에 관  
한 정보 습득을 위해 학문의 총체적 연관성을 고  
려하여 개편되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는 데 반하  
여 학생들은 民族·民主·統一을 지향하는 인간  
형성에 주안점을 맞출 것을 바라고 있다. 실제  
충철된 이유로 말미암아 그러한 시각 차의 조정  
이 쉽지 않고 또한 현실적으로는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교수의 충원과 강의 공간 확보, 과밀 수  
업 해소 등이 인적·재정적 제약으로 인하여 쉽  
사리 해결될 전망이 보이지 않으므로 교양 과정  
개편이 상당한 논란을 겪고 많은 난관에 봉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기존의 교양 과정이 많은 문제점들을 내  
포하고 있으므로 대다수의 교수, 학생이 그 개  
편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의  
발전과 대학 민주화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  
문에 舊殼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교양 과정이 편중된  
특정 이데올로기의 단순 재생산이나 정권에 대  
한 무조건적 봉사 자세에서 탈피하고, 서구 중  
심의 편향성을 극복하면서 한국 현실에 근거하  
여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체워짐으로써 자연과 역사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사회에 대한 총체적 인식을  
두루 갖춘 自主的·創造的인 인간 형성에 이바  
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교양 과정  
이 참다운 전인 교육의 실현에 있어서 제 몫을  
감당해 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대학교육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한다. 물론 교양 과정 개편만으로 대학  
교육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일시  
에 교양 과정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해결책들을 찾  
아 나간다면 교양 과정의 문제점과 더불어 대학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데 커다  
란 계기가 되고 나아가 한국 현실의 모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일조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